

평화로 가는 길

1과.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



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1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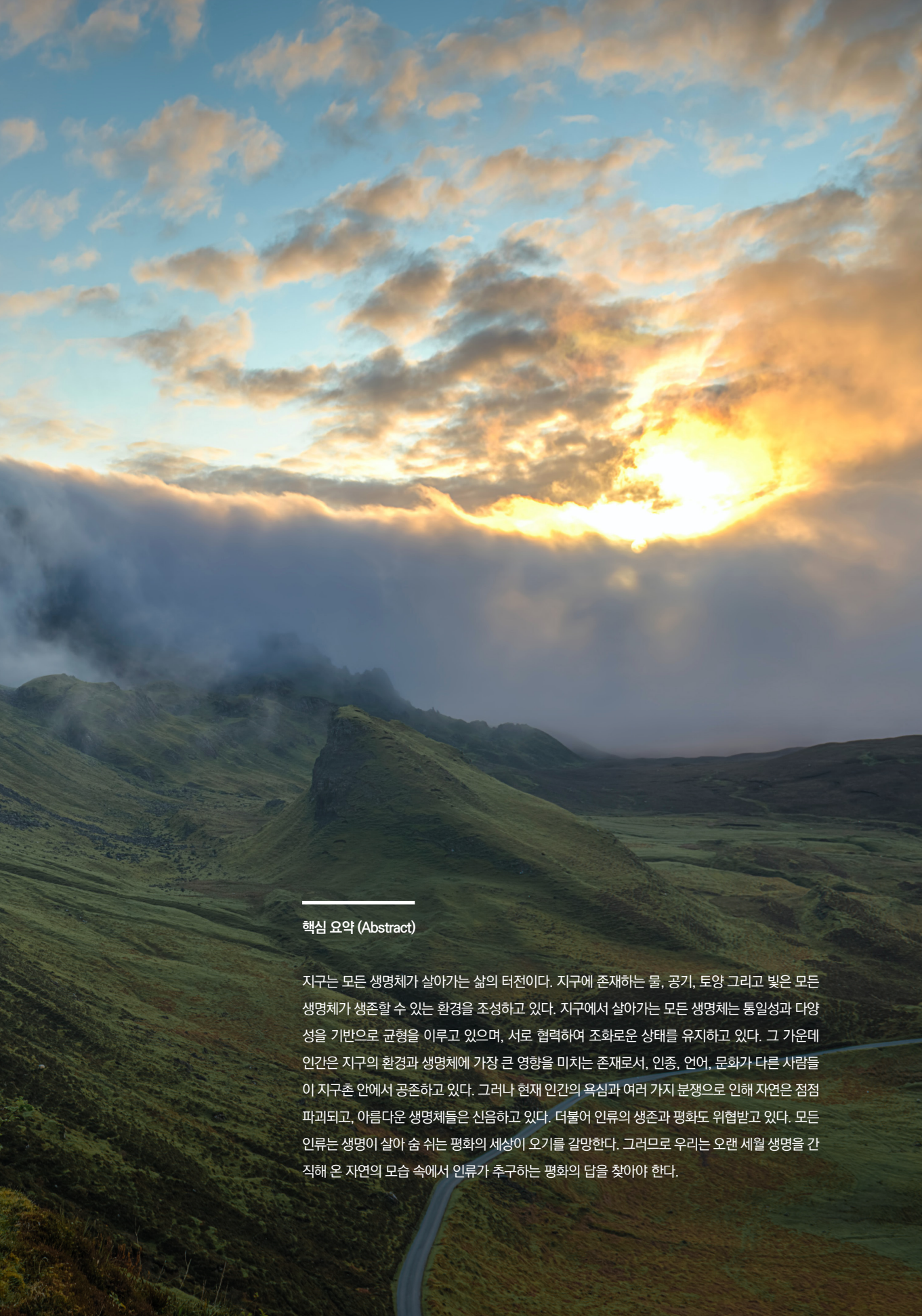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

Section 1 생명의 터전 지구

Section 2 통일성, 다양성

Section 3 조화, 균형, 협력

Section 4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에 대한 논쟁과 평화



핵심 요약 (Abstract)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 공기, 토양 그리고 빛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협력하여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인종,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지구촌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욕심과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은 신음하고 있다. 더불어 인류의 생존과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 모든 인류는 생명에 살아 숨 쉬는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세월 생명을 간직해 온 자연의 모습 속에서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의 답을 찾아야 한다.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Look deep into nature,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everything better.

—

알버트 아인슈타인 (독일/미국 물리학자, 1879~1955)



Section 1

생명의 터전 지구

천지만물은 본래 어떤 모습일까?

어느 시대에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의 주요 목적이었다. 인간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종교 또한,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학문적 관점에서든, 종교적 관점에서든, 생명의 터전인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생명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평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한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고서(古書)는 천지와 만물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유년 아이들의 학습서로 사용됐던 천자문¹⁾과 계몽편²⁾의 첫머리를 살펴보자. 천자문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광활하다(天地玄黃 宇宙洪荒).”라는 말로 시작하고, 계몽편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땅이 있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다. 해, 달, 별은 하늘에 매여 있다. 강, 바다, 산은 땅이 싹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여기서 우주와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부를 의미한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가르쳤던 이유는 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1 중국 양나라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책으로 한문 학습의 입문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2 대한민국 조선시대 미취학 아동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1.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지구

우주 공간에는 무수한 은하와 별들이 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크게 대기(하늘)와 육지(땅), 그리고 바다로 구분되어 있다. 육지와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생물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Life)’³⁾을 기준으로, 2021년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생물의 수는 약 199만 종이다. 놀라운 점은 지금도 매년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어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극 지방, 적도 지방, 사막, 심해나 높은 산 위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2014년 처음 발견된 ‘마리아나 스네일피쉬(Mariana Snailfish)’는 수압이 800기압에 이르는 수심 8,000m 심해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런 심해에서도 생물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처럼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하며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행성이다.



그림 1-1 돌을 뚫고 자라난 나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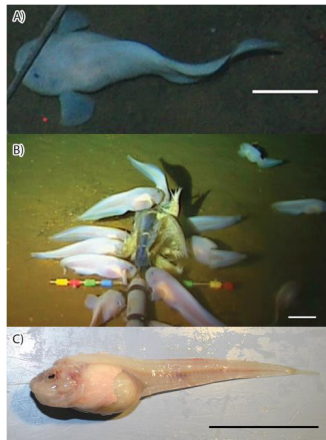


그림 1-2 마리아나 스네일피쉬

³ 2007년부터 지구 상의 모든 생물 종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백과사전이다.

2.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 물, 공기, 빛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미국의 우주비행사 페기 윗슨(Peggy Whitson)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대기 상태, 화산 폭발, 오로라, 국가별 야경,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자동차와 사람 등을 우주에서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지구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암실과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치 누군가 불을 켜 준 것 같다(Just like I lived my whole life in semi dark room and somebody flipped on the lights.)”라고 표현했다.

수많은 행성 중 현재까지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된 행성은 지구뿐이다.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코스모스(COSMOS)>의 저자인 칼 세이건(Carl Sagan)은 1961년에 발표한 논문⁴⁾에서 금성에 지구(Terra)와 비슷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테라포밍(Terraforming)’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1973년 <이카루스(ICARUS)>지에 게재한 논문⁵⁾에서는 좀 더 가능성 높은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칼 세이건의 구상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지구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개조하자는 것이지, 화성이 원래부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15년 3월, 미국항공우주국은 수십억 년 전 화성에도 원시 바다와 지구 대기압과 비슷한 대기층이 존재했지만, 태양풍의 영향으로 바다와 대기층이 사라져 현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발표했다.⁶⁾ 테라포밍 연구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물과 공기와 빛이다.

첫 번째 조건은 물이다. 지구의 지표면은 71%가 물로 덮여 있다. 물은 지구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모

4 Carl Sagan, The Planet Venus, Science, 24 Mar 1961: Vol. 133, Issue 3456, pp. 849-858

5 Carl Sagan, Planetary engineering on Mars, Icarus, Volume 20, Issue 4, December 1973, Pages 513-514

6 <https://www.nasa.gov/press/2015/march/nasa-research-suggests-mars-once-had-more-water-than-earth-s-arctic-ocean>

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사람의 몸은 5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신생아는 몸의 약 75%, 노인은 약 50%를 차지한다. 물은 대기, 육지, 해양 사이를 순환하며 지구에 유입된 태양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준다. 또 물순환은 각종 물질이 순환하는 동력이자 수단으로, 지구 어디서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발생과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기에,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 때도 과학자들은 가장 먼저 물의 존재 여부부터 살핀다.

두 번째 조건은 공기이다. 공기의 약 21%를 차지하는 산소는 생명체의 호흡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평소 산소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은 낮아지고, 산소의 양은 줄어든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이 2,500m 이상 고지대에 방문했을 때 고산병에 시달리는 것도 산소 부족 때문이다. 해발 5,1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인 페루 안데스산맥의 '라 링코나다(La Rinconada)'는 산소 농도가 저지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폐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공기의 약 78%를 구성하는 질소는 핵산과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 모든 생물의 성장과 기능에 필수적인 원소다. 또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이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공기 덕분이다.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다. 공기가 매질이 되어 우리 귀에까지 소리를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빛이다. 지구는 외부 세계와 에너지 교환은 할 수 있으나, 물질 교환은 하지 않는 닫힌계(closed system)를 이루고 있다. 외부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것은 태양에너지다. 이 태양에너지가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이후 물과 대기와 물질의 순환도 멈추고, 모든 생명체에 에너지 공급이 끊기게 된다.

3.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인간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지라도, 기나긴 지구의 역사동안 모든 생물이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과거에 멸종되어 사라진 생물도 있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도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무분별한 벌목, 바다 쓰레기, 배기가스 오염 등의 환경 문제와 맞물려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지구에 생명체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는 인간이 각종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구와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한 예로, 열대우림에만 서식하는 오랑우탄은 삼림 벌채와 밀렵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등 38곳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오랑우탄 개체 수가 14만 8,500마리 줄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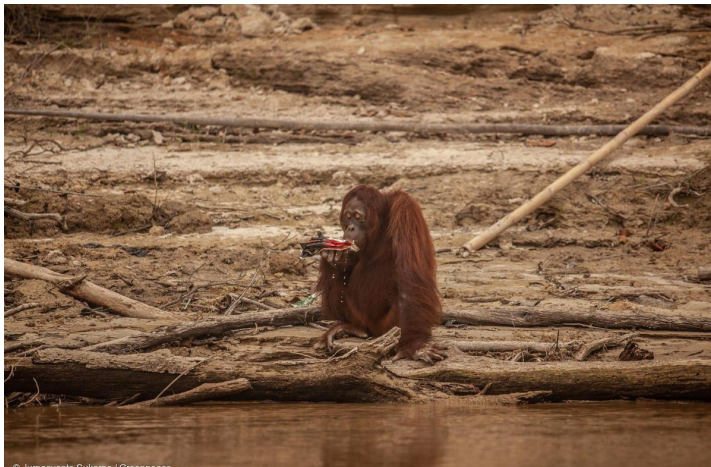


그림 1-3 멸종위기의 오랑우탄

인간의 선택에 따라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 파괴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터전이며,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최고의 가치이다. 평화도 결국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구와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지구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자.

memo





우리는 용광로가 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신념, 열망, 희망, 꿈이 모인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자.

*We become not a melting pot but a beautiful mosaic. Different people, different beliefs,
different yearnings, different hopes, different dreams.*

—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 1924~현재)



Section 2

통일성, 다양성

통일성, 다양성은 왜 필요할까?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 특성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자연이 보여주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류 사회에 적용하면, 각종 차별과 불평등, 혐오 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 통일성(Unity of Life)

지구에는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에 사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중요한 몇 가지의 공통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생명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생명의 통일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모든 생물은 넓은 의미의 가족이다

인간, 강아지, 나무,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심해어,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 모든 생명체는 4개의 핵 염기(사이토신, 구아닌, 아데

닌, 티민)로 구성된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를 단백질로 합성하는 형질 발현 과정도 동일하다. DNA는 자신에게 저장된 유전정보를 스스로 발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RNA의 도움을 받는다. mRNA(messenger RNA)는 DNA에 저장된 유전정보를 복사해서 리보솜(ribosome)으로 옮겨 준다. tRNA(transfer RNA)는 mRNA가 운반하는 유전정보와 일치하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한다. 이후 리보솜은 rRNA(ribosomal RNA)의 도움을 받아 전달받은 다양한 유전정보를 해석하고, 아미노산을 결합해 유전정보와 일치하는 단백질을 종류별로 생산해낸다. 그래서 보통 DNA는 설계도, RNA는 엔지니어, 리보솜은 단백질 공장으로 비유한다. 모든 생명체는 위 과정을 통해 DNA에 저장된 유전정보를 전부 발현하고, 개체를 형성하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탄소 기반 생명체이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탄소화합물⁸⁾이 필요하다. 산소(O)와 수소(H)로 구성된 물은 액체 상태일 때 탄소(C)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종류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해낸다. 액체 상태의 물 없이는 탄소화합물 생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한다.

또 모든 생명체에게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체내에서 분해된 탄수화물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아데노신삼인산)라는 최종 형태의 분자로 바뀌게 된다. 이 ATP가 바로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통용되는 에너지 화폐이다. 인체 내 모든 세포는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도 박테리아도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위와 동일한 생화학적 경로를 거쳐 ATP를 생산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생명의 통일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진화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생

⁸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도 부른다.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화합물을 의미한다.

물학에서는 모든 생물이 공통의 조상(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LUCA)에서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⁹⁾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유전적 특성을 공유한 아주 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든 인간은 넓은 의미의 가족이다

2003년, 인간게놈프로젝트¹⁰⁾가 최초로 완료된 이후 인간의 게놈 지도는 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게놈지도 분석해본 결과, 모든 인간의 유전자는 99~99.9%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물학적으로는 백인, 흑인 등 인종을 구분하는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부색은 멜라닌 세포의 양적 차이일 뿐이며, 모든 인류의 유전적 차이는 고작 0.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는 알고 보면 가깝거나 먼 친척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유사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유전적 우월성을 억지로 주장해 인간의 가치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없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모든 인간은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과 가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한 가족이며, 동등한 인권과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때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9 창조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든 생명체는 한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10 인간게놈프로젝트: 인간 게놈에 있는 약 32억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2. 다양성

1) 생물 다양성(Biodiversity)과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생물학자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생물의 수 약 199만 종과 더불어 미발견 생물까지 더하면, 지구상의 생물은 1천만 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지구 생태계의 특성이다. 생물 다양성 덕분에 지구상의 생물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상호 의존하여 풍요롭게 살아간다. 생물 분류 체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처음에는 동물계, 식물계 2계 분류 체계에서 시작해, 현미경의 발달로 미생물이 발견되면서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 3계 분류 체계가 사용되었다. 이후 5계 분류 체계를 거쳐 현재는 3역(domain) 6계(kingdom) 분류 체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물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생물을 형태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했지만, 지금은 진화적 연관 관계까지 반영해 분류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꾸준히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해에 존재하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으며, 한 줌 흙에도 아직 분류되지 않은 박테리아나 균류 같은 미생물이 수천 종 이상 존재한다. 남극대륙에서는 남극 빙하 1~3km 아래 존재하는 수백 개의 호수에서 햇빛 없이도 수만 년간 생존해온 미생물에 관한 연구¹¹⁾가 진행 중이다. 고세균(Archaea) 가운데는 심해 화산 분출구 같은 무산소, 초고온, 초고압의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물도 발견되고 있다. 고세균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지구에는 아직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생물이 가득하다.

인류 사회는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는 국제연합(UN) 회원국 193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206개이다. 78억 명의 인구와 7,117개의 언어¹²⁾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은 혁신과 창조성의 근원이다. 또 문화마다 언어, 의상, 음식, 생활 양식 등이 모두 다르다. 문화는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과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11 ASM Journals,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Vol. 72, No. 2, Biodiversity of Methanogenic and Other Archaea in the Permanently Frozen Lake Fryxell, Antarctica

12 <https://www.ethnologue.com/guides/how-many-languages>

가진 유산이다. 생물 다양성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진화적 전략인 것처럼, 문화 다양성도 기후, 식생 등을 반영한 인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2) 다양성의 위기와 회복

현재 지구촌은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두 가지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약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며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역설했다.¹³⁾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자원 채취와 개발, 그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급격한 기후 변화 등이 현재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이다. 생태계 파괴는 이상고온, 해수면 상승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Rio Summit, UNCED)는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당시 12살 캐나다 소녀 세번 스즈키(Severn Suzuki)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저는 여러분께서 과연 해결책을 갖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방법, 죽은 강으로 연어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사라져 버린 동물을 되살려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salmon back up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forests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desert. If you

13 <https://ipbes.net/news/how-did-ipbes-estimate-1-million-species-risk-extinction-globalassessment-report>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인류의 문화 다양성은 대항해시대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유행처럼 번진 제국주의와 식민지 정책,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큰 위기에 처했었다.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이 대부분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아는가? 유럽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아프리카 민족의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국경을 직선으로 그은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도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민족은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시리아, 쿠르드 자치구, 티베트,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과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많은 지역이 문화 다양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다양성의 시대이다. 유튜브로 지구 반대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도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흐름 속에 세계시민으로 살고 있다. 지구상에는 단일민족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더 많고, 이민자와 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다양성 회복은 인류의 평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 다양성 회복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합의는 2001년 유네스코 185개 회원국이 채택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이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둘째는,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다. 문화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제 사회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구촌 시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이다.

memo





모이는 것은 시작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발전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working together is success.

—

헨리 포드 (미국 기업인, 1863-1947)



Section 3

조화, 균형, 협력

조화, 균형, 협력은 왜 필요할까?

생태계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큰 틀에서 볼 때 상호 의존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류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국가, 민족, 조직 간 갈등으로 전쟁, 테러, 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이 보여주는 조화, 균형, 협력은 인류 사회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가치이다.

1. 조화

조화는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요소가 어긋나거나 부딪힘 없이 고르게 잘 어울리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충돌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

유네스코는 자연미와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볼 때, 지구상의 탁월한 자연 지역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우

리가 자연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양한 경관과 생물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 유네스코 자연유산 터키 파묵칼레



그림 3-2 유네스코 자연유산 중국 장가계

숲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지 알 수 있다. 숲은 나무, 균류, 곤충, 새, 초식 동물, 육식 동물 등 각종 야생 생물의 보고이다. 또한, 많은 생물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 살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흙 한 줌 속에는 전 세계 인구수만큼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양이 중요하다. 나무뿌리는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고, 나무 수관은 숲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생물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습도와 토양 상태를 만들어준다. 지렁이나 곤충은 땅속에 적당한 빈 공간을 만들어주어 나무뿌리의 호흡을 돕고, 또 뿌리가 쉽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얻을 수 없는 균류는 나무뿌리를 감싸고 나무로부터 당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대신, 나무뿌리를 공격하는 각종 박테리아와 싸워준다. 또 균류는 나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토양 중금속을 대신 흡수해 나무를 보호한다. 나무는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낙엽이 바로 노폐물 저장소이다. 잎은 여름내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충분히 합성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모아두었다가 가을에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낙

엽은 나무에는 배설물이지만, 숲속 생물에는 더없이 훌륭한 식량이다. 진드기, 톡토기 등이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흙도 같이 섭취하는데, 그 배설물에는 각종 유기물과 광물이 섞여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렇게 숲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조화롭게 살기 위한 스위스의 노력

스위스는 삶의 질, 국력, 기업 개방성, 문화유산 등 9개 범주에 65개 세부항목을 평가하는 ‘U.S. News & World Report Best Countries’ 조사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¹⁴⁾ 스위스는 지리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리히텐슈타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언어적으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종교 분포는 스위스 관광청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38%, 개신교 27%, 이슬람 5%, 불교 0.5%, 무교 21.4%이다.¹⁵⁾ 이렇게 스위스는 언어, 종교, 인구 구성까지 다양성 그 자체이다. 스위스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스위스 헌법 전문(前文)에는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실천하며 살기(im Willen, in gegenseitiger Rücksichtnahme und Achtung ihre Vielfalt in der Einheit zu leben)”라는 구문이 있어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가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스위스 같은 다중 언어 환경은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스위스는 효과적인 언어 정책으로 언어권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헌법은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했고, 방송이나 신문은 4개 언어로 제작 및 보급되고 있다. 특히 소수 언어인 로만슈어 보호를 위해 연방 정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스위스는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내용처럼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스위스의 사례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의 갈등 해결과 국민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4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overall-rankings>

15 <https://www.myswitzerland.com/en/planning/about-switzerland/general-facts/facts-about-switzerland/religion/>

2. 균형

자연에서의 균형은 인간, 식물, 동물과 같은 생명체와 자연환경 사이의 평형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생태 균형을 반영한 것이 조화이다. 다양한 개체가 모였다고 해서 꼭 조화로운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만들어진다.

1) 균형의 필요성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면적이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의 세 배가 넘는 약 9,000km²에 이른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강, 호수, 산, 협곡, 간헐천¹⁶⁾, 폭포, 기암괴석 등의 자연 지형물과 사슴, 물소, 조류 등 야생동물의 보고이다. 20세기 초 옐로스톤에서는 가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늑대 사냥이 진행되었다. 결국, 1926년에 옐로스톤에서 늑대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문제는 늑대가 사라지자 공원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엘크와 사슴을 비롯한 초식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초식동물은 공원의 어린 나무와 풀을 닦치는 대로 먹어 치웠다. 특히 강가의 나무가 줄어들자 강의 범람이 잦아지면서 강 주변 토양이 유실되었고, 강가에 사는 비버의 서식지도 함께 사라졌다. 생태계의 균형이 점점 무너지자, 1960년대부터 많은 학자가 옐로스톤에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결국, 1995년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포획해서 옐로스톤에 풀어주었다.¹⁷⁾ 이후 늑대의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초식동물의 수는 줄어들었고, 강과 나무와 숲은 서서히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비버의 서식지는 1995년 1곳에서 2021년 9곳으로 늘어났다.¹⁸⁾ 학자들은 지금도 늑대의 재도입이 옐로스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며, 이 연구는 생태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조금씩 밝혀주고 있다.

16 열수(熱水)와 수증기, 기타 가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

17 <https://www.nps.gov/yell/learn/nature/wolves.htm>

18 <https://www.yellowstonepark.com/things-to-do/wildlife/wolf-reintroduction-changes-ecosystem/>

균형 잡힌 조화로운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는 25개의 악기가 한데 모여 연주하는 음악의 한 형태이다. 모든 악기는 각각 다른 소리를 낸다. 심지어 같은 악기라도 악기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공간에서 연주되는지에 따라 소리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보통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한다. 보통은 오보에의 A 코드에 맞춰서 스트링이나, 마우스피스, 리드, 밸브를 돌려 서로의 소리를 맞춰간다. 자신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소리에 집중하여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조율을 마친 25개의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곡을 감상하면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느낀다.

2) 깨어진 균형

반대로 균형이 깨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베트남 고엽제피해자협회(The Vietnam Association for Victims of Agent Orange, VAVA)는 베트남 전쟁(1955~1975) 당시 미군이 베트남의 은신처인 정글을 없애기 위해 베트남에 약 8,000만 리터의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¹⁹⁾ 고엽제는 원래 산림 파괴용 제초제이지만,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성분은 현재 유엔에서 화학무기로 지정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48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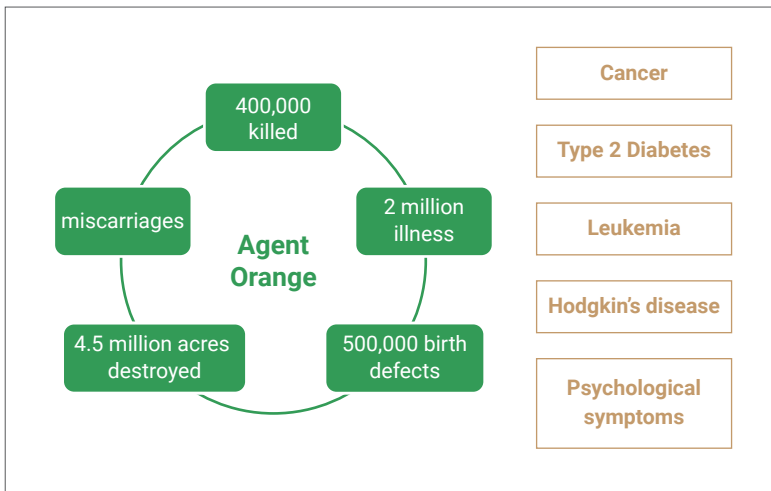


그림 3-3 베트남 고엽제의 피해(Damage of Agent Orange in Vietnam)

19 <http://vava.org.vn/an-over-view-of-vietnam-association-for-victims-of-agent-orange-dioxin-vava-89.html>

제에 노출되어 40만 명이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되었다.²⁰⁾ 또 고엽제로 인해 베트남 농지 약 1,000만 헥타르가 오염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형아 발생률이 이전보다 10배가 높아졌다. 2018년, 미국 방송국 WNCN(CBS17)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자녀의 고엽제 피해사례가 3세대까지도 유전적으로 이어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²¹⁾

3. 협력

1) 나무의 협력

산림학자이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수인 수잔 시마드(Suzanne Simard)는 30년간 캐나다 숲의 나무를 연구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나무들이 땅속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아주 먼 거리의 나무와도 소통한다는 것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2018년 6월호)에 실린 'Talking Trees'에 의하면 무리 중 가장 큰 나무가 중추(hub)가 되어서, 약 47개의 나무에 정보나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네트워크는 화재나 홍수 등의 위급 상황을 공유해 생존을 돕고, 초식동물의 공격에 대응하게 해준다. 나무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망은 바로 나무뿌리에서 식해 양분을 먹고 사는 균이다. 수많은 균이 연결된 균근망은 마치 인터넷 연결망과 같아서 이를 통해 나무는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카시아는 초식동물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균근망을 통해 위험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이 신호를 전달한 나무에서 시작해 50야드 안의 나무들이 초식동물에게 에틸렌 가스(Ethylene gas)를 분출한다. 에틸렌 가스를 맡은 초식동물은 10분 정도만 나무에 머무르다가 떠나게 된다. 이렇게 나무는 상호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

20 York, Geoffrey; Mick, Hayley; Last Ghost of the Vietnam War, The Globe and Mail, July 12, 2008

21 <https://www.cbs17.com/news/south/agent-orange-effects-being-seen-in-grandchildren-of-vietnam-war-veterans>

2)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Great Pacific Garbage Patch(GPGP)’ 혹은 ‘Plastic Vortex’라고 불리는 이 곳은 북태평양에 위치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다. 환경 단체인 ‘The Ocean Cleanup(TOC)’에 따르면 GPGP의 규모는 160만km²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의 세 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린 논문²²⁾에 의하면 매해 최대 1,27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각종 바다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거북이, 돌고래, 바다표범 등 바다 생물은 플라스틱 부스러기가 음식물이라고 착각하고 먹는다. 유네스코에서 열린 ‘Rio+20 Conference’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의 바다 생물이 플라스틱 때문에 사망한다고 한다.²³⁾

특별히 GPGP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GPGP가 공해(公海)상에 위치해 있어 특정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환경 보호 단체와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GPGP 문제 해결에 있어 주목받고 있는 ‘The Ocean Cleanup(TOC)’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바다 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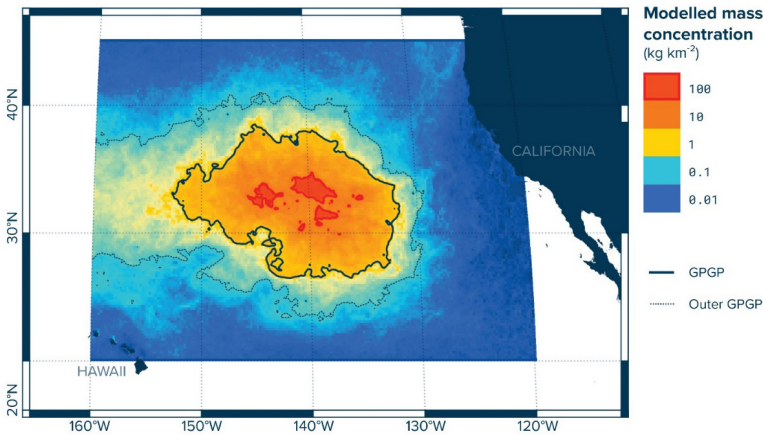


그림 3-4 GPGP의 위치와 규모 (The Ocean Cleanup)

22 Jenna R. Jambeck, 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 Science, 13 Feb 2015: Vol. 347, Issue 6223, pp. 768-771

23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ioc-oceans/focus-areas/rio-20-ocean/blueprint-for-the-future-we-want/marine-pollution/facts-and-figures-on-marine-pollution/>

스틱을 직접 수거하는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 중이다. 또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하천에서 시작함을 발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되어 있는 하천 1,000개의 청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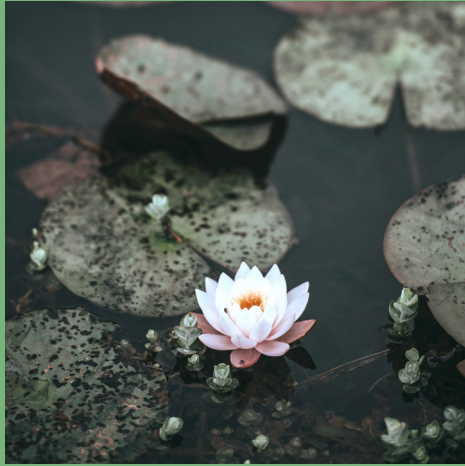
3)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라는 정부 간 기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연맹의 창립 목적은 중재와 협력으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국제연맹의 노력은 소규모 분쟁 해결에 있어 처음 몇 해 동안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처음 생긴 정부 간 기구이기에 국가 간 균형과 협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 현재 유엔에는 193개국 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9월 유엔 총회가 개최되면 각국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하지만 현재 유엔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거대 자본 앞에서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²⁴⁾ 유엔은 국제연맹을 교훈 삼아 창립 목적인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간 균형과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24 Jean Ziegler, *Chemins d'esperance: ces combats gagnes, parfois perdus mais que nous remporterons ensemble* (2016)

memo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If one truly loves nature, one finds beauty everywhere.

—

빈센트 반 고흐 (네덜란드 화가, 1853~1890)



Section 4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에 대한 논쟁과 평화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과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번 과는 자연의 모습을 토대로 그려본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의 밑그림이다. 하지만 “과연 자연 상태를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에서 인간의 원시적 상태는 평화롭다고 보았다. 반대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으로 규정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연은 파괴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화산, 지진, 해일, 홍수 등으로 지금까지 많은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또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자연계의 먹이 사슬 안에는 죽고 죽이는 일이 있으며, 동종살해도 종종 발견된다. 우두머리에서 밀려난 수컷의 새끼를 죽이는 침팬지, 경쟁자의 등지에 있는 알을 절벽으로 떨어트리는 새의 모습도 관찰된다.

그렇다면 자연의 모습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는 것은 잘못된 시도인가? 그렇지 않다. 자연이 종종 보여주는 파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현재까지 생명체의 존재가 밝혀진 유일무이한 행성이다. 약 46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왔다. 그리하여 현재 지구에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 즉, 외계 행성의 생명체 유무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지구가 생명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생명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구에서 생명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평화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평화의 답도 자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히틀러와 나치는 전쟁이 자연의 원칙에 따른 생물학적 투쟁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을 정당화했다. 자연의 파괴적인 모습이 인간의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전쟁과 동물의 싸움은 ‘목적’과 ‘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먼저 싸움의 ‘목적’을 살펴보자. 동물의 싸움은 생존을 위한 먹이 사냥이나 영역 다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간의 다툼 정도이다. 수컷의 힘겨루기는 대부분 한쪽에서 패배를 인정하면 바로 멈추며, 대체로 죽음에 이르도록 싸우지 않는다. 먹이를 사냥할 때도 동종은 주로 먹잇감이 아니다. 동종포식(Cannibalism)을 하는 종이 일부 있지만, 동종 살해는 자연계에서도 드문 현상이다. 반면 인간의 전쟁은 동물의 싸움과 다르게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전쟁의 대부분은 소수의 지도자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목적으로 일으키며, 청년들은 거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강제 동원된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의 목숨이 전란에서 희생된다. 생존 자체가 목적이라면 전쟁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전쟁하지 않고도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을 방법은 수없이 많다. 또 인간의 전쟁은 동물의 싸움과 달리 오직 동종만을 살해의 대상으로 삼는다.

규모 면에서도 인간의 전쟁은 동물의 싸움과 차원이 다르다. 동물

의 무기는 이빨, 발톱, 독침 등 자신의 신체 일부이다. 그리고 싸움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싸우려 하지 않는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사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살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를 만들어 전쟁에 사용한다. 여러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무기, 원거리에서 상대방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무기,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생화학 무기 등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핵무기는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인간의 전쟁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연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만큼 위협적이다. 이렇게 목적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도 싸움이 있으니 인간의 전쟁도 정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만이 자행하는 끔찍한 전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 수증 핵실험 장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축물을 7개나 만든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는 자신의 작품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답도 자연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각종 자연재해나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싸움을 인간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듯이, 인류도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는 총과 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력은 무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싸웠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또 전쟁을 후대에 대물림해야겠는가? 전쟁을 종식 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과 칼이 아닌 평화의 답을 찾아야 한다. 풍요로운 생명의 터전인 지구, 아름다운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자.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유네스코 헌장 전문(前文)에서 보듯이,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정치나 권력, 무력 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교육의 첫걸음은 천지만물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모습 속에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의 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자연의 모습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답을 찾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야 한다.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일성, 다양성, 조화, 균형, 협력의 가치들은 인류 세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답이다. 하지만 인간은 시대마다 지나친 욕심으로 동종을 살해하는 끔찍한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끔찍한 살상 무기 개발을 두고 앞다투어 경쟁했다. 심지어 자연계의 싸움을 부각해 ‘전쟁의 자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문 지식을 배운 전문가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평화 가치관을 갖추지 못하면 지구와 인류 세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기 전에, 과연 위의 가치관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인간은 어떤 생명체보다 지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와 인간을 파괴하는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교육을 통해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워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

이미지 출처

- 그림 1-1 https://cdn.pixabay.com/photo/2017/06/09/19/56/ta-prohm-2388126_1280.jpg
그림 1-2 Gerringer M. E., Linley T. D., Jamieson A. J., Goetze E., Drazen J. C. - Gerringer M. E., Linley T. D., Jamieson A. J., Goetze E., Drazen J. C., CC-BY 3.0,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b/Pseudoliparis_swirei.png
그림 1-3 Jurnasyanto Sukarno, <http://www.greenpeace.org/korea>
그림 3-1 https://cdn.pixabay.com/photo/2012/02/19/15/55/pamukkale-14967_1280.jpg
그림 3-2 https://cdn.pixabay.com/photo/2019/07/23/07/23/zhangjiajie-4356771_1280.jpg
그림 3-3 자체제작
그림 3-4 <https://assets.theoceancleanup.com/app/uploads/2019/04/TOC-GPGP-Modelled-Mass-Concentrations.jpg>
그림 4-1 https://cdn.pixabay.com/photo/2012/11/28/09/32/explosion-67557_1280.jpg
-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0 5층
Tel.02-514-1963 Fax.02-514-1961
<http://www.hwpl.kr>
hwpl@hwpl.kr

초판 제1쇄 발행일 2021년 9월 18일
펴낸곳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ISBN 979-11-91898-00-2
ISBN 979-11-974584-9-1 (세트)

Copyright © 2021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

05060

7 91191 898002

ISBN 979-11-91898-06-4

ISBN 979-11-974584-9-1 (세트)